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의 차이*

박 세 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레저 활동 참가자들의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며, 성격 유형별로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5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격 유형은 Holland의 이론에 근거하여,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레저동기와 레저만족 간에 정적 상관이 있고, 레저제약과 레저만족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는 관습형이 진취형, 탐구형 및 예술형보다 레저동기가 높았지만, 레저제약과 레저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후비교를 한 결과, 레저제약 요인으로 사회형, 현실형, 진취형 및 탐구형이 관습형보다 흥미 부족을 더 보였고, 사회형과 진취형이 예술형보다 동만자 부재가 더 많았다. 또한 레저만족의 경우에 관습형이 탐구형, 진취형, 현실형 및 예술형보다 교육적 만족을 더 느꼈고, 관습형이 진취형보다 사회적 만족을 더 느꼈다. 휴식적 동기는 모든 성격 유형에서 레저만족을 설명하였고, 인지효능적 동기는 탐구형을 제외한 모든 성격 유형에서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탐구형에서만 지적 동기가 레저만족을 설명하였다. 흥미 부족은 현실형, 예술형 및 관습형에게 레저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레저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 레저동기를 높이고 레저제약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요인이 다르므로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레저 활동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어 : 성격 유형, 레저동기, 레저제약, 레저만족

* 이 논문은 2006년도 전북대학교 해외연구년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박세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664-14
Tel: 063-270-2929, E-mail: psy@chonbuk.ac.kr

레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일보다는 레저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레저는 쾌락과 성취감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과거보다 레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레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이나 책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정의된다. 다른 복잡한 인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레저 활동에의 관심이나 참여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 모두가 레저시간 활용에 기여한다.

레저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에 레저의 본질적인 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저 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레저 활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에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레저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은 매우 다양하게 펼쳐진다. 먼저, 레저에 관한 연구 경향은 레저동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레저동기란 레저행동의 이유와 방향으로 레저 경험에 앞서 개인이 어떤 레저 활동을 좋아하여 선택하고 참여하게 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이유라고 정의된다(신갑호, 문용, 1999). 이러한 레저동기가 레저 활동 참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Carroll & Alexandris, 1997; Stodolska, 2000). 이는 레저동기가 사람들의 레저행동 참여방식을 설명해주고 레저 활동 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Manfredo, Driver, & Tarrant, 1996). Deci와 Ryan(1985)은 자기결정성 연속선상에 따라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하는 여러 동기 유형

을 제안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정립하였다. Baldwin과 Caldwell(2003)도 Ryan과 Deci(2000)와 같이 여가동기 유형을 무동기, 외재적,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면서 무동기 쪽으로 갈수록 비자기결정적이며 내재적 동기로 갈수록 자기결정적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레저 활동 참여를 통해 해당 레저 욕구나 동기를 만족시킬 때 레저만족이 초래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특정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레저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상당히 볼 수 있다(김이영, 2004; 문영희, 2003; 이광수, 2003; 진종현, 1998; 한신수, 2008). 예를 들면, 레저에 대한 지적, 휴식적, 인지효능적, 사회적 동기 모두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휴식적, 환경적 만족도 모두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래, 2000).

한편, 레저 활동 참가자들이 인지하는 제약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레저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레저제약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성희, 1997; 지현진, 이철원, 2003; 한신수, 2008; 홍성희, 1990). 레저제약이란 개인의 레저선호의 형성을 제한하고 레저에의 참여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정의된다(Jackson, 1991). 이러한 레저제약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인지되고 경험되기 때문에(Jackson & Searle, 1985), Crawford와 Godbey(1987)는 레저제약 요인들을 내재적 단계, 대인적 단계, 그리고 구조적 단계로 구분한 분류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레저제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레저 참여와 발생, 레저동기, 권태, 지속성 등과 연관된 레저 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

다(지현진, 이철원, 2003).

이에 따라 레저동기와 제약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레저동기에 대한 개인의 강렬한 지각이 레저 참여에 관한 제약요인을 감소시키며 특정 레저행동의 방향, 강도 및 지속성을 결정짓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Kanfer, 1994; 김성희, 이철원, 2003에서 재인용). 또한 레저제약 요인이 레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송원익과 여인성(2004)은 모든 레저제약 요인이 레저만족과 생활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성희(1997)도 레저제약 인지도가 레저만족과 생활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수민(2008)의 연구에서는 대인적 제약요인이 레저 활동의 사회적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구조적 제약요인은 정서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내재적 제약요인은 레저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레저에 관한 또 다른 연구방향은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성격 특성과 레저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레저라면, 레저를 즐기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더욱이 개인의 성격 차이가 레저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u와 Hu, 2005). 레저에 대한 성격 특성 연구는 레저 행동과 선호 레저를 설명하는 안정적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Mannell & Kleiber, 199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 활동을 분류하거나(Taylor, Kelso, Cox, Alloway & Matthews, 1979), 성격 유형과 선호 레저 활동의 관계에 따른 레저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하

며(강경미, 2003, Melamed, Meir, & Samson, 1995), 더 나아가서는 이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송강영, 김홍설, 1996; 전병관, 김홍석, 1998). 김기호, 김기갑, 문용(200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레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 특성이라는 변수는 레저 활동 유형과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Lu와 Hu(2005)는 외향성이 레저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신경증은 레저만족과 부적 상관이 있어, 이 두 가지 성격 특성이 행복감의 유의한 예언변수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Eysenck와 Eysenck(1975)의 EPQ에서 외향성과 신경증의 두 요인만을 측정하여 행복과 상관을 구하고(Lu & Hu, 2005), Big-5 요인과 정서의 상관을 분석하며(정용각, 2000), MBTI로 측정된 성격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김기호, 김기갑, 문용, 2000) 등 주로 성격검사 점수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Holland의 자기탐색검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MMPI와 NEO-FFI는 성격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산출할 수는 있으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MBTI는 성격을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따라서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기가 용이하고 유형의 개수도 비교적 적당한 Holland의 자기탐색검사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Holland(1985, 1996)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실형은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과제에 가치를 두고 자신이 기계적 기술을 가졌고 사교술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한다. 탐구형은 지적이고 과학적이며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자신을 분석적이고 비평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내성적이며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술형은 비체계적이거나 예술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자신이 상상력과 표현력이 풍부하고 독립적이라고 지각한다. 사회형은 협동적이고 다정하며 도움을 주고 통찰력이 있으며 설득적이고 책임감이 있다. 진취형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성취와 감독 및 리더십에 가치를 두고, 자신이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행복하고 주장이 강하며 인기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지각한다. 관습형은 언어적이고 수학적 자료가 있는 질서 있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자신이 순응하는 사람이고 사무기술과 수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격 유형, 레저동기 및 레저제약 요인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레저만족과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관련 변수들 간의 구체적인 역동성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이 레저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이 서로 관계가 있으며,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이 달라, 결과적으로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이 레저만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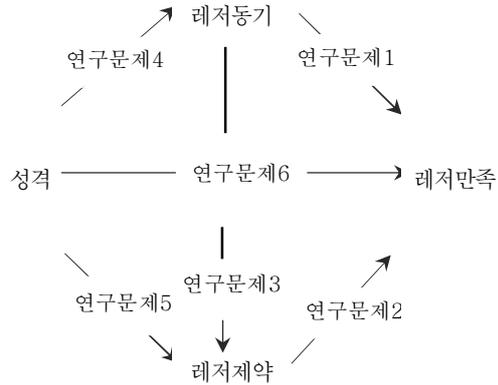


그림 1. 레저만족 관련 변수들의 가설적 인과 모형

1. 레저동기와 레저만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레저제약과 레저만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에 차이가 있는가?
5.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제약에 차이가 있는가?
6.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만족에 차이가 있는가?
7.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이 레저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조사대상

전북지역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500여명에게 수업시간에 개인

마다 3부씩 약 1500부의 질문지를 세 집단의 연령대(20대, 30대, 40대 이상)별로 조사하여 수거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이 중 996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무응답이 많은 238부를 제외한 75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성격 유형이 분명하지 않은 224부를 제외하여 53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는 참가자의 성격 유형, 레저 활동 참여동기, 레저 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요인 및 레저 활동의 만족도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격 유형

조사대상자들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Holland의 이론에 입각하여 안창규와 안현의 (2003)가 제작하여 한국 가이던스에서 발행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연구 참여자들의 평소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통해서 직업적 성격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격 유형은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의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질문지에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예’,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을 그 사람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명히 어느 한 유형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두세 가지 유형의 조합이다(Holland, 1996). 가장 높은 점수가 두 개 이상 나온 경우에는 성격 유형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최종 분석에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92	54.7
	여자	242	45.3
연령	20대	306	57.3
	30대	96	18.0
	40대	66	12.4
	50대 이상	66	12.4
직업	사무직	49	9.2
	자영업	60	11.2
	전문직	51	9.6
	영업직	20	3.7
	주부	44	8.2
	학생	293	54.9
	기타	17	3.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105	19.7
	대학교 재학	284	53.2
	대학교 졸업	119	22.3
월수입	대학원 이상	26	4.9
	100만원 이하	396	52.2
	101-200만원	140	18.5
	201-300만원	80	10.5
전체	301만원 이상	37	4.9
	무응답	105	13.9
전체		534	100.0

제외하였다. 성격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현실형 85명(15.9%), 탐구형 113명(21.2%), 예술형 74명(13.9%), 사회형 27명(5.1%), 진취형 112명(21.0%), 관습형 123명(23.0%)으로 나타났다.

레저동기

조사대상자들의 레저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Ragheb과 Beard(1980)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김지현(1992), 김형준(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32문항으로 되어있는데,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예,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싶어서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 내용은 추가하여(예,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어서이다”) 모두 3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레저참여의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레저제약

레저 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기열(1997), 김성규(1997), 김철원, 김성찬, 이세형과 양명환(1995)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문항을 수집하여 고수민(1998)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개발한 레저제약 척도를 사용하였다. 레저제약 척도는 모두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레저제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저제약 척도는 모두 여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 부족 다섯 문항(예, “레저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 시설 부족 세 문항(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시간 부족 여섯 문항(예, “집안일을 돕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게으름 세 문항(예, “게으름 때문에 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제 문제 두 문항(예, “가정 경제가 레저 생활을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동반자 부재 세 문항(예, “가족 중 레저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다”)이다.

레저만족

레저 활동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agheb와 Beard(1980)가 개발하고 김경태(1996),

박수정(1996), 이종길(199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레저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사용하였다. 레저만족척도는 모두 24개의 문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저만족 척도는 모두 여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리적 만족 네 문항(예, “내가 즐기고 있는 레저 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교육적 만족 네 문항(예, “레저 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을 얻게 해 준다”), 사회적 만족 네 문항(예, “레저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하게끔 해 준다”), 휴식적 만족 네 문항(예, “레저 활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생리적 만족 네 문항(예, “레저 활동은 신체적으로 효과가 있다”), 환경적 만족 네 문항(예, “내가 레저 활동을 즐기는 장소 및 시설은 신선하고 깨끗하다”)이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 유형,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의 α 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들과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성격 유형별로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 유형별로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 과

척도의 신뢰도와 요인분석

성격 유형,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Cronbach의 α 는 레저동기 척도가 .884, 레저제약 척도는 .892, 그리고 레저만족 척도가 .927로 나타났다. 성격 유형 척도의 경우에는 .685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레저동기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Kaiser회전을 하여 주성분 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레저동기는 네 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레저동기의 하위요인을 휴식적, 인지효능적, 신체적, 그리고 지적 동기라고 명명하였다. 휴식적 동기는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다. 인지효능적 동기는 다양한 레저 활동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환경 통제를 높여 자기 확장 과정의 일부로서의 동기를 뜻한다. 신체적 동기는 몸매를 가꾸고 체력 증진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말한다. 지

적 동기는 학습, 창조, 심미적 동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학습, 탐색, 발견, 사고 등과 같은 순수한 정신적 활동과 관련된 동기다.

레저제약과 레저만족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확증적 요인분석의 결과, 레저제약과 레저만족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요인들을 확증하였다.

레저동기와 레저만족 간의 관계

레저동기와 레저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변수 간의 단순상관계수와 그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레저동기와 레저만족의 상관계수는 .682 ($p < .01$)이고,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도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레저동기와 레저만족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레저동기가 높을수록 레저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저제약과 레저만족 간의 관계

레저제약과 레저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표 2. 레저동기와 레저만족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레저동기	휴식적 동기	인지효능적 동기	지적 동기	신체적 동기
레저만족	.682**	.614**	.505**	.490**	.487**
심리적 만족	.600**	.483**	.536**	.386**	.442**
교육적 만족	.597**	.483**	.523**	.331**	.502**
사회적 만족	.509**	.421**	.452**	.311**	.387**
휴식적 만족	.536**	.657**	.359**	.320**	.335**
생리적 만족	.549**	.517**	.251**	.610**	.290**
환경적 만족	.429**	.341**	.297**	.314**	.359**

** $p < .01$

위해서 이들 변수 간의 상관과 그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레저제약과 레저만족의 상관계수는 $-.241(p<.01)$ 이고, 레저제약은 교육적 만족을 제외하고는 레저만족의 다른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는 레저제약을 크게 지각하는 것이 레저만족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 부족과 경제 문제와 같은 개인의 외적 장애는 레저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간의 관계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변수 간의 상관과 그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저동기는 레저제약의 흥미 부족($-.247, p<.01$), 게으름($-.129, p<.05$)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레저제약은 레저동기의 휴식적 동기($-.103, p<.05$), 지적 동기($-.163, p<.01$)와 상관

이 있었다. 레저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 게으른 것은 레저동기를 감소시키고, 휴식적 동기와 지적 동기가 높은 사람이 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레저제약을 크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동기와 하위요인의 차이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와 레저동기의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5, 528)=5.802, p<.001$. 성격 유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으로 사후비교를 한 결과, 관습형이 진취형, 탐구형 및 예술형보다 레저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인지효능적 동기와, $F(5, 528)=10.245, p<.001$, 신체적 동기가, $F(5, 528)=7.020, p<.001$, 성격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비교의 결과, 관습형은 탐구형, 현실형, 진취형 및 예술형보다 인지효능적 동기가 높았고, 탐구형이 예술형보다 인지효능적 동기가 높았다. 또한 관습

표 3. 레저제약과 레저만족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레저제약	흥미 부족	시설 부족	시간 부족	게으름	경제 문제	동반자 부재
레저만족	-.241**	-.362**	-.165**	-.048	-.313**	-.037	-.160**
심리적 만족	-.236**	-.337**	-.184**	-.050	-.313**	-.039	-.134**
교육적 만족	-.081	-.290**	-.069	-.018	-.181**	.040	-.005
사회적 만족	-.137**	-.261**	-.026	-.011	-.194**	.024	-.115**
휴식적 만족	-.223**	-.388**	-.109*	-.045	-.303**	-.006	-.183**
생리적 만족	-.263**	-.371**	-.181**	-.081	-.287**	-.058	-.200**
환경적 만족	-.186**	-.154**	-.200**	-.050	-.195**	-.092*	-.115**

* $p<.05$, ** $p<.01$

표 4.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레저동기	휴식적 동기	인지효능적 동기	신체적 동기	지적 동기
레저제약	-.059	-.103*	.068	.026	-.163**
흥미 부족	-.247**	-.283**	-.078	-.136**	-.258**
시설 부족	.003	-.023	.086*	.066	-.113**
시간 부족	.062	.055	.097*	.071	-.025
게으름	-.129**	-.198**	-.003	-.040	-.156**
경제 문제	.045	-.044	.082	.091*	-.068
동반자 부재	-.032	-.090*	.083	.024	-.111*

* $p < .05$, ** $p < .01$

표 5.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동기와 하위요인의 평균과 변량분석

	빈도	레저동기	휴식적 동기	인지효능적 동기	신체적 동기	지적 동기
현실형(R)	85	3.44(.55)	3.71(.64)	3.21(.65)	3.30(.72)	3.56(.77)
탐구형(I)	113	3.34(.60)	3.52(.76)	3.25(.67)	3.17(.85)	3.45(.92)
예술형(A)	74	3.25(.52)	3.64(.72)	2.91(.69)	3.02(.73)	3.43(.83)
사회형(S)	27	3.46(.57)	3.56(.72)	3.34(.79)	3.40(.76)	3.57(.75)
진취형(E)	112	3.39(.62)	3.66(.68)	3.08(.79)	3.33(.82)	3.50(.92)
관습형(C)	123	3.66(.62)	3.77(.73)	3.60(.75)	3.64(.84)	3.64(.86)
<i>F</i>		5.802***	1.713	10.245***	7.020***	0.867
사후검증		C>E, I, A		C>I, R, E, A I>A	C>E, R, I, A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p < .001$

형이 진취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보다 신체적 동기가 높았다.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제약과 하위요인의 차이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제약과 레저제약의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제약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5, 528)=2.844, p < .05$. 성격 유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하여 사후 비교를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레저제약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 부족, $F(5, 528)=3.778, p < .01$, 게으름, $F(5, 528)=2.324, p < .05$, 및 동반자 부재가, $F(5, 528)=3.144, p < .01$, 성격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표 6.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제약과 하위요인의 평균과 변량분석

	빈도	레저제약	흥미 부족	시설 부족	시간 부족	게으름	경제 문제	동반자 부재
현실형(R)	85	2.75(.60)	2.21(.81)	2.89(.98)	2.97(.82)	2.70(.85)	3.26(.86)	2.49(.89)
탐구형(I)	113	2.66(.61)	2.14(.71)	2.91(.95)	2.79(.85)	2.73(.89)	2.99(.99)	2.38(.75)
예술형(A)	74	2.51(.64)	2.01(.70)	2.64(.93)	2.89(.77)	2.53(.92)	2.84(.92)	2.14(.77)
사회형(S)	27	2.84(.54)	2.36(.79)	3.02(.79)	3.06(.93)	2.70(.79)	3.17(.82)	2.72(.77)
진취형(E)	112	2.74(.60)	2.24(.75)	2.86(.96)	2.92(.92)	2.73(.78)	3.14(.96)	2.54(.79)
관습형(C)	123	2.55(.65)	1.91(.68)	2.81(.96)	2.72(.91)	2.43(.81)	2.96(1.00)	2.47(.84)
<i>F</i>		2.844*	3.778**	1.115	1.464	2.324*	2.126	3.144**
사후검증			S, E, R>C					S, E>A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p < .05$, ** $p < .01$

보였다. 사후비교의 결과 사회형, 진취형 및 현실형은 레저제약의 요인으로 흥미 부족을 관습형보다 더 많이 지적하였고, 사회형과 진취형이 레저제약의 요인으로 동반자 부재를 예술형보다 더 많이 지적하였다.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만족과 하위요인의 차이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만족과 레저만족의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만족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레저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 심리적 만족, $F(5, 528)=4.809$, $p < .001$, 교육적 만족, $F(5, 528)=3.291$, $p < .01$, 및 사회적 만족이, $F(5, 528)=2.544$, $p < .05$,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증을 하여 사후비교를 한 결과, 관습형은 탐구형, 현실형, 진취형 및 예술형보다 심리적 만족을 더 느꼈고, 관습형이 예술형보다 교육적 만족을 더 느꼈으며, 관습형이 진취형보다 사회적

만족을 더 느꼈다.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하위요인들의 레저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이 레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 유형별로 레저동기의 하위요인들과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레저만족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현실형은 표 8, 탐구형은 표 9, 예술형은 표 10, 사회형은 표 11, 진취형은 표 12, 그리고 관습형은 표 13에 나와 있다.

현실형의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휴식적 동기($\beta=.383$, $p < .001$), 인지효능적 동기($\beta=.413$, $p < .001$), 흥미 부족($\beta=-.198$, $p < .05$) 순이었고, 이들 변수는 현실형의 레저만족의 52.3%를 설명하였다.

탐구형의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지적 동기($\beta=.360$, $p < .001$), 휴식적 동기

표 7.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만족과 하위요인의 평균과 변량분석

	빈도	레저 만족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현실형(R)	85	3.47(.52)	3.43(.61)	3.37(.70)	3.46(.73)	3.71(.71)	3.65(.81)	3.22(.71)
탐구형(I)	113	3.49(.69)	3.49(.78)	3.37(.78)	3.46(.84)	3.69(.74)	3.59(.94)	3.34(.80)
예술형(A)	74	3.45(.54)	3.37(.61)	3.21(.68)	3.49(.68)	3.67(.69)	3.77(.81)	3.19(.73)
사회형(S)	27	3.48(.56)	3.55(.69)	3.49(.72)	3.41(.74)	3.64(.69)	3.57(.96)	3.22(.87)
진취형(E)	112	3.46(.59)	3.39(.74)	3.46(.68)	3.36(.70)	3.72(.67)	3.58(.86)	3.23(.64)
관습형(C)	123	3.66(.57)	3.77(.70)	3.61(.73)	3.68(.69)	3.87(.70)	3.71(.87)	3.29(.84)
<i>F</i>		1.946	4.809***	3.291**	2.544*	1.296	0.696	0.506
사후검증			C>I, R, E, A	C>A	C>E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표 8. 현실형의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예약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수	β	<i>t</i>	adjusted R^2	ΔR^2	<i>F</i>
휴식적 동기	.383	4.207***	.382	.382	51.257***
인지효능적 동기	.413	4.722***	.489	.108	17.269***
흥미 부족	-.198	-2.410*	.523	.034	5.806*

* $p < .05$, *** $p < .001$

표 9. 탐구형의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예약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수	β	<i>t</i>	adjusted R^2	ΔR^2	<i>F</i>
지적 동기	.360	5.473***	.481	.481	102.805***
휴식적 동기	.397	6.369***	.629	.148	43.954***
게으름	-.234	-4.126***	.677	.048	16.239***
신체적 동기	.147	2.534*	.695	.018	6.422*

* $p < .05$, *** $p < .001$

($\beta = .397$, $p < .001$), 게으름($\beta = -.234$, $p < .001$), 신체적 동기($\beta = .147$, $p < .05$) 순이었고, 이들 변수는 탐구형의 레저만족을 69.5% 설명하였다. 예술형의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

표 10. 예술형의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수	β	t	adjusted R^2	ΔR^2	F
휴식적 동기	.542	5.917***	.362	.362	40.887***
흥미 부족	-.274	-2.995**	.434	.072	8.969**

** $p < .01$, *** $p < .001$

표 11. 사회형의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수	β	t	adjusted R^2	ΔR^2	F
인지효능적 동기	.444	3.887***	.478	.478	22.909***
휴식적 동기	.555	5.345***	.723	.244	21.144***

* $p < .05$, *** $p < .001$

표 12. 진취형의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수	β	t	adjusted R^2	ΔR^2	F
휴식적 동기	.476	6.770***	.415	.415	77.911***
신체적 동기	.227	2.461*	.511	.096	21.483***
시설 부족	-.214	-3.319***	.549	.038	9.159**
인지효능적 동기	.188	2.024*	.566	.017	4.096*

* $p < .05$, *** $p < .001$

표 13. 관습형의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수	β	t	adjusted R^2	ΔR^2	F
인지효능적 동기	.284	2.742**	.334	.334	60.598***
흥미 부족	-.248	-3.591***	.414	.081	16.539***
신체적 동기	.231	2.574*	.444	.030	6.336*
휴식적 동기	.196	2.270*	.467	.023	5.154*

* $p < .05$, *** $p < .001$

수는 휴식적 동기($\beta = .542$, $p < .001$), 흥미 부족($\beta = -.274$, $p < .01$) 순이었고, 이들 변수는 예술형의 레저만족을 43.4% 설명하였다.

사회형의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

수는 인지효능적 동기($\beta = .444$, $p < .001$), 휴식적 동기($\beta = .555$, $p < .001$) 순이었고, 이들 변수는 사회형의 레저만족을 77.5% 설명하였다.

진취형의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

수는 휴식적 동기($\beta=.476, p<.001$), 신체적 동기($\beta=.227, p<.05$), 시설 부족($\beta=-.214, p<.001$), 인지효능적 동기($\beta=.188, p<.05$) 순이었고, 이들 변수는 진취형의 레저만족을 56.6% 설명하였다.

관습형의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인지효능적 동기($\beta=.284, p<.01$), 흥미 부족($\beta=-.248, p<.001$), 신체적 동기($\beta=.231, p<.05$), 휴식적 동기($\beta=.196, p<.05$) 순이었고, 이들 변수는 관습형의 레저만족을 46.7%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휴식적 동기는 모든 성격 유형에서 레저만족을 설명하였고, 인지효능적 동기는 탐구형을 제외한 모든 성격 유형에서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탐구형에서만 지적 동기가 레저만족을 설명하는 변수였다. 신체적 동기는 탐구형, 진취형 및 관습형에게도 레저만족의 유의한 예언변수였다. 레저제약은 레저동기만큼 레저만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흥미 부족은 현실형, 예술형 및 관습형에게 레저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수였다. 그밖에 탐구형은 게으름, 진취형은 시설 부족이 레저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레저행동에 영향을 주는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성격 유형에 따라 이들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성격에

따라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에 있어서 차이를 확인하고, 성격 유형별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이 레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레저 활동 참가자들이 레저 활동을 하는 동기는 휴식적 동기, 인지효능적 동기, 신체적 동기 및 지적 동기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Beard와 Ragheb(1983)은 레저동기를 휴식적 동기, 유능적 동기, 사회적 동기 및 지적 동기의 네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Beard와 Ragheb(198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박용관(2001)은 휴식적 동기, 신체적 활동 동기, 사회적 동기, 지적 동기, 유능감 인지 동기의 다섯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박수정(1996)과 원형중(1998)은 지적, 환경적, 효능적, 휴식적 동기의 네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채선애와 한성열(2002)은 자기개발 및 자기향상 동기와 정서 및 심리적 안정추구 동기의 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이건호와 권혁철(2008)은 본 연구와 동일한 네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Baldwin과 Caldwell(2003), 그리고 이들의 척도를 사용한 조아미(2003)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동기,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동기의 다섯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신수(2008)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에 근거하여 내재적 동기, 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 무동기의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마다 요인이 달리 나타난 것은 외국에서 개발한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레저 활동에 장애가 되는 레저제약은 흥미 부족, 시설 부족, 시간 부족, 게으름, 경제 문제 및 동반자 부재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에 레저제약을 개념화한 Crawford와 Godbey(1987)와 Crawford, Jackson과 Godbey(1991)는 레저제약을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및 대인적 제약으로 분류하였다. 송원익과 여인성(2004)은 Crawford와 Godbey(1987)가 분류한 세 요인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실제로 요인분석을 통해 레저제약의 요인을 확인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한신수(2008)는 요인분석을 통해 원래의 분류대로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및 대인적 제약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지만, 박용란(2001)은 시간적 제약, 경제적 제약, 주변인적 제약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고, 지현진과 이철원(2003)은 여덟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성영호, 강석명과 허건식(2003)는 요인 내용은 다르지만 본 연구와 동일하게 여섯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고수민(1998)은 본 연구와 내용이 같은 여섯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양운석(2004), 성영호, 강석명과 허건식(2003)도 동일한 구조로 여섯 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레저동기 척도와 마찬가지로 레저제약도 연구마다 다른 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표준화를 통해 타당한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레저 활동으로 얻는 레저만족은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및 환경적 만족의 여섯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Beard와 Ragheb(1980)이 확인한 것과 동일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Beard와 Ragheb(1980)의 척도를 이용하여 여섯

요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예, 김경태, 1996; 김미, 1997; 박수정, 1996; 이종길, 1992; 정용민, 2001). 그렇지만 Beard와 Ragheb(1980)의 척도를 사용하여 송원익과 여인성(2004), 이기문(2005), 이진호와 권혁철(2008)은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레저만족 또한 연구마다 문항을 수정·보완하면서 문항이 다르게 조정되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이 추출된 결과로 보인다.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레저동기는 레저만족과의 상관($r=.675, p<.01$)이 유의하였고, 레저제약도 레저만족과의 상관($r=-.247, p<.01$)이 유의하였다. 즉 레저동기가 높고 레저제약이 적을수록 레저만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레저동기가 레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용민(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레저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레저동기를 높이고 레저제약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간 부족과 경제 문제와 같은 개인의 외적 장애는 레저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 레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레저에 대한 흥미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으며 함께 레저를 즐길 사람을 갖는 동시에 레저 공급자는 레저와 관련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레저동기는 레저제약의 흥미 부족 요인과 게으름 요인과 상관이 있었다. 즉 레저에 대한 흥미가 적고 레저 활동에 대해 귀찮게 생각할수록 레저에 대한 동기가 낮았다. 반면에 시간 부족과 경제 문제는 레저동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저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줄만큼 시간 부족과 경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레저동기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시설 부족, 시간 부족, 경제 문제 및 동반자 부재보다는 내적 요인인 흥미 부족과 게으름과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은 개인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레저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레저제약은 레저동기의 휴식적 동기와 지적 동기와 상관성이 있었다. 휴식적 동기와 지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레저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레저제약을 크게 지각하는 사람이 휴식적 동기와 지적 동기가 낮았다.

성격 유형에 따른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Holland의 기준에 따라 레저 활동 참가자들의 성격을 분류하였다. Holland의 기준에 의한 성격 유형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및 관습형의 여섯 가지 유형이다. 성격 유형에 따라 이들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가 달랐다. 관습형이 진취형, 탐구형 및 예술형보다 레저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인지효능적 동기와 신체적 동기가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관습형은 탐구형, 현실형, 진취형 및 예술형보다 인지효능적 동기가 높았고, 탐구형이 예술형보다 인지효능적 동기가 높았다. 또한 관습형이 진취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보다 신체적 동기가 높았다. 관습형이 인지효능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잘 짜여진 구조를 선호하고 세밀하며 체계적인 성향을 보이므로 레저 활동을 통해 능력을 시험하고 점차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욕구와 건강에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인지효능적 동기와 신체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예술형은 자기중심적이고 개방적이므로 인지효능적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레저제약도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레저제약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흥미 부족과 동반자의 부재가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회형, 현실형, 진취형 및 탐구형이 관습형보다 흥미 부족이 더 많았고, 사회형과 진취형이 예술형보다 동반자 부재가 더 많았다. 관습형은 고정되어 있어 변화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레저에 대한 흥미 부족이 가장 큰 레저제약의 요인이 되었고, 사회형과 진취형은 타인과 함께 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반자의 부재를 가장 커다란 레저제약으로 지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레저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 교육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이 성격 유형에 따라 달랐다. 관습형은 탐구형, 진취형, 현실형 및 예술형보다 교육적 만족이 더 높았고, 또한 관습형이 진취형보다 사회적 만족이 더 높았다. 관습형이 레저 활동을 통해 교육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빈틈이 없으며, 계획성이 있는 그들의 성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탐구형이 교육적 만족이 가장 높고, 사회형은 사회적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하기가 쉽다. 그러나 탐구형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레저 경험으로는 이러한 욕구가 기대한 수준만큼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적 만족을 높게 지각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사회형도 사회적 만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elamed, Meir와 Samson (1995)은 성격에 따라 레저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직무만족 및 자존감과 정적 상관이 있고, 소진과 불안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요인이 다르므로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레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레저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의 하위요인들이 레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휴식적 동기는 모든 성격 유형에서 레저만족을 설명하여 성격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휴식적 동기가 높은 사람이 레저만족이 높았다. 인지효능적 동기는 탐구형을 제외한 모든 성격 유형에서 레저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레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적 동기는 탐구형에서만 레저만족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 탐구형에게는 지적 동기가 레저만족을 높이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체적 동기는 탐구형, 진취형 및 관습형에게 레저만족의 유의한 예언변수였다.

레저제약은 레저동기만큼 레저만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흥미 부족은 현실형, 예술형 및 관습형에게 레저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수였다. 그밖에 탐구형은 게으름, 진취형은 시설 부족이 레저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형, 예술형 및 관습형은 레저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탐구형은 레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도움이 되며, 진취형에게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레저 활동 참가자들의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

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이 어떻게 다르며, 성격 유형별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요인들이 레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별도로 다루어졌던 이들 변수를 함께 다루어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일부 대상에 한정된 연구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확장하여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연구대상이 전 북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성격 유형 중에서 사회형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성격 이외에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레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다루게 되면 연구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연구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 기초 연구로서 심리적 변수에만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에 차이가 있는지와 레저동기와 레저제약이 레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성격유형,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각 변인 간의 종합적인 가설적 모델을 구성하여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외된 인구통계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레저 마케팅 활용의 차원에서 성격 유형에 따라 레저 활동 참가자들을 세분화하여 레저동기, 레저제약 및 레저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고 성격 유형별로 레저만족에 대한 레저동기와 레저제약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레저 행동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미 (2003). 성격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의 차이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수민 (1998). 교사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태 (1996).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열 (1997). 고등학생의 여가태도와 여가장애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호, 김기갑, 문용 (2000).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성격특성 및 생활만족 간의 인과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3, 121-135.
- 김미 (1997). 생활체육 종목에 따른 참여자의 동기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 (1997). 광역시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장애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1997). 가정주부의 여가제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6, 463-473.
- 김성희, 이철원 (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391-400.
- 김양례 (2000).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 14(1), 69-81.
- 김이영 (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츠이벤트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1992). 스키장 이용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철원, 김성찬, 이세형, 양명환 (1995). 대학생의 운동참여 제약 척도 개발.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창간호, 88-99.
- 김형준 (1992). 수원시 팔달공원의 사회집단과 일반 이용자의 동기와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희 (2003). 볼링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몰입경험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1996). 수상 스포츠 참여자의 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및 참여 만족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란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유형에 따른 여가동기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영호, 강석명, 허건식 (2003). 대기업 직장인들의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논총, 13(2), 107-120.
- 송강영, 김홍설 (1996). 성격특성과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6, 169-180.
- 송원익, 여인성 (2004). 대도시근로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4), 685-697.
- 신갑호, 문용 (1999). 노인의 여가만족, 여가몰입 체험 그리고 생활체육 참가간의 확장모델. 한국체육학회지, 38(4),
- 안창규, 안현의 (2003).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 가이던스.
- 양운석 (2004). 검도지도자의 여가활동 제약요인

- 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형중 (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369-386.
- 이건호, 권혁철 (2008).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레저동기, 레저만족 및 체험정서의 차이. 여가학연구, 6(2), 109-128.
- 이광수 (2003).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 스포츠몰입,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 (2005). 검도수련자의 참여동기유형과 참여만족도의 관계.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병관, 김홍석 (1998). 여가스포츠 참여 직장인의 성격유형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 체육과학논총, 11, 81-100.
- 정용각 (2000). 여가운동 참가자 성격의 Big-5 요인과 정서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 265-275.
- 정용민 (2001). 생활체육 참여동기, 스포츠 몰입, 여가만족 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 749-760.
- 조아미 (2003). 청소년 여가동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청소년학연구, 10, 381-401.
- 지현진, 이철원 (2003). 보편적 여가제약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 441-449.
- 진중현 (1998). 스포츠센터 회원의 참여동기와 활동 만족도 연구. 평택대학교 논문집, 10(1), 533-545.
- 채선애, 한성열 (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7-31.
- 한신수 (2008). 노인여가의 제약 및 동기요인이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성희 (1990).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ldwin, C. K., & Caldwell, L. L. (2003). Development of the free time motivation scale for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 129-151.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eard, J. G., & Ragheb, M. G.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Carroll, B., & Alexandris, K. (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s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15-25.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 9, 119-127.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dden & Stoughton.
- Holland, J. L. (1985). *Making occupational choice: A*

- theory of occup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1996).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What we have learned and some new di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51, 397-406.
- Jackson, E. L. (1991). Leisure constraints/constrained leisure: Special issue introdu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4), 279-285.
- Jackson, E. L., & Searle, M. S. (1985).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concept and modes. *Society and Leisure*, 8, 693-707.
- Lu, L., & Hu, C. H. (2005). Personality, leisure experiences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325-342.
- Manfredo, M. J., Driver, B. L., & Tarrant, M. A. (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188-213.
- Mannell, R. C., & Kleiber, D. A. (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PA: Cato Avenue State College.
- Melamed, S., Meir, E. I., & Samson, A. (1995). The benefit of personality-leisure congruence: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25-40.
- Ragheb, M. G., & Beard, J.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todolska, M. (2000). Change in leisure participation patterns after immigration. *Leisure Sciences*, 22, 39-63.
- Taylor, K. F., Kelso, G. I., Cox, G. N., Alloway, W. J., & Matthews, J. P. (1979). Applying Holland's vocational categories to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2, 199-207.

1차원고접수 : 2009. 6. 16.

수정원고접수 : 2009. 7. 17.

최종게재결정 : 2009. 8. 16.

Differences of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Sea-Young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differences of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Total of 534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According to Holland, personality type was classified into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and conventional typ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and betwee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satisfaction. But correlation between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of leisure motiva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was significant. Leisure motivation of conventional type were higher than investigative, enterprising, realistic, and artistic type. Differences of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were not significant. However, the post-hoc comparisons showed that social, realistic, enterprising, and investigative type were higher than conventional type in lack of interest, and social and enterprising type were higher than artistic type in lack of partners. Conventional type was higher than investigative, enterprising, realistic, and artistic type i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conventional type was higher than enterprising type in social satisfaction. Relaxational motivation accounted for meaningful variation in leisure satisfaction for the total personality types, competence-mastery motivation accounted for meaningful variation in leisure satisfaction for the total personality types except investigative type, and intellectual motivation accounted for meaningful variation in leisure satisfaction for investigative type. Lack of interest accounted for meaningful variation in leisure satisfaction for realistic, artistic, and conventional types. Because of different leisure motivation factors and leisure constraints factor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 leisure activities considering personality type.

Key words : personality type,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atisfaction